

고은 불교대하소설

다시 아귀노릇

그렇다면 인간이 가장 가기 싫어 하는 곳인 지옥이란 바로 인간 세계 안에서의 고통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음에 틀림없다. 마음속의 지옥, 살 속의 지옥 말고 따로 인간계의 남심부주 지하에만 지옥이 있고 인간계 부근의 바다 속에 아귀계가 별도로 있는 것만이 아니다. 비록 큰 세상이 아귀계이며 굶주리는 나날이 아귀계의 나날이다. 굶이 아귀계가



고 밋십년이고 지내는 동안 굶어져서 마침내 그 팔을 내리도 좋을 때에 팔을 내려본즉 아주 팔을 들어올린 그대로 굶은 나머지 내려지지 않았다. 그는 아주 적은 양의 음식으로 살다가 평생의 음식을 먹자마자 배가 터져 죽게 된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일부 수행자들 중의 어떤 사람들은 짐승과의 철저한 일치를 위해서 짐승처럼 살았다. 개 고행자는 개처럼 얼뜨려 거다녔고 똥크리고 자야 했으며 땅바닥에 놓인 것만을 할아먹었다. 부처님도 그런 종류의 고행을 무릅썼다. 나는 목동들이 떠나면 외양간으로 가서 어린 짐마가 송아지들이 싸놓은 똥을 먹었다. 내 똥 가운데서 덜 소화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먹었다. ... 나는 별가슴이로 다녔다. 뜰에는 나무두루터기처럼 여러 해 동안 때가 썩어 썩었다. 나는 때를 씻을 생각도, 씻게 놓아줄 생각도 없었다. 나는 시체가 가득 널려있는 들뜬으로 가서 뼈다귀들을 주워다 집자리를 만들었다. 그러자 목동들이 와서 나에게 똥을 뺐기도 하고 오물을 던지기도 하고 풀줄기로 내 귀를 찌르기도 하였다...

그런 부처님은 승유기조차 오래동안 멈추는 수행을 하였다. 그는 하루에 종말 서너분만으로 살기도 하고 풀 한모금 마시지 않는 아귀 고행을 하기도 하였다. 이런 고행과 아귀계의 고통은 질적으로 다른 것만 철저히 굶주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은 같다. 하지만 실지로 아귀계에서 다재(多財) 아귀는 무엇이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여기므로 그는 아귀인 것이다. 만족과 감사가 없는 상태, 그것

이상을 바라는 상태야말로 그가 아무리 큰 부호라 한들 아귀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가 탐욕이아말로 아귀인 것이다. 어떤 아귀는 인간계에도 틀러거릴 수 있고 천상계의 궁전에도 틀러거릴 수 있음과 온갖 음식의 잔치를 누릴 수 있어도 지주 그것이 먹고싶은 식욕의 화대로 말미암아 그는 아귀일 수밖에 없다. 이런 다재아귀와 달리 소재아귀는 제 머릿속 뇌수를 파먹던지 혹은 송장을 후벼먹던지 하는 아귀이거나 무재아귀는 아귀계에서도 가장 아래층에 속한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음식을 먹으면 먹자마자 그것이 입안이나 목안 그리고 뱃속에서 불덩어리가 되어 활활 불타는 것이다. 이런 아귀계는 그 근원은 탐욕 때문에 벌어지는 굶주림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

들이며 한다. 인간의 탐욕이란 짐승보다 훨씬 더 약하다. 재것뿐 아니라 남의 것까지 마구 삼켜 버리는 그 탐욕, 기름진 것, 값비싼 것은 다 먹어치우려는 그 소유의 탐욕을 소멸시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의 탐욕의 내일에 찾아오는 아귀계의 고통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하늘 높이 나는 학(鶴)을 볼 깨달이 있다. 그 학의 내장 속은 텅 비어있다. 바닷가의 오랜 인간의 여행에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거북의 배를 따 보면 그 장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그런 거북한 짐승들은 거북할 이외에도 아주 오래 사는 것이다. 진시흥의 아방궁 후원 찬모 한 사람이 그 진나라가 망한

심지어 산짐승도 몸이 아프면 먼저 먹은 것을 끊고 흙속에 영양이를 대어 흠이 빨아들이는 힘으로 몸 속의 병을 빨아내는 것이다. 고려시대 사람들의 운동에는 네발 짐승처럼 기어다니기, 거의 기어다니는 모양으로 걸릴질 청소하기 그리고 법당에 들어가서 오세부지의 끈질을 계속하는 것이 있었다. 그래야 여자는 아기를 잘 낳게 되고 남정네는 천리도 이웃처럼 다녀올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맨발 바닥으로 길을 걷는 일이아말로 곧 건강에의 길이기도 하였다. 요컨대 아귀는 탐욕의 오늘이었다. 탐욕은 내일의 아귀인 것이다. 이 한치도 어긋없는 사실에 의해서 아귀계는 중생

밥은 그 첫째 덕목에 보시(布施)를 내세운 것이고 그 궁극이 자비(慈悲)가 아니겠는가. 보시란 순수한 마음으로 남에게 물건이나 다른 것을 아낌없이 주는 행위이다. 그래서 부처님 본생담-자타카-에는 제 살을 구워서 수행자에게 공양한 토끼 이야기, 독수리에게 쫓긴 비둘기들을 구

모르는 그것이었지. 그러나 피나 고름도 먹어야 하고 썩은 고기도 먹어야 하겠지...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고기도 먹어야 하겠지... 아니 산사람의 고기도 먹어야 하는 것이 아귀였지... 자... 그러면 이 섬에 혼자 남아있는 나는 아귀가 아닌가? 우리는 그 자신으로 돌아왔다.

단식 10여일이 지나면서 우너는 마음의 평화를 누렸다 "쉬자...내몸과 마음을 다 비워서"

하루에 한 줌의 생활을 먹는 것조차 지금의 그로서는 아귀에 가까운 노릇이라고 여겨졌다.

탐욕이 있다면, 탐욕의 찌꺼기가 남아 있다면 그것으로 스승을 삼아야 하리.

우너는 그날로부터 하루에 한줌씩 먹는 생활도 그만 두었다. 그 알골 안에는 아직도 배에 실려있는 쌀이 쌓여 있었다. 차츰 그런 곡식을 알아차린 쥐도 드나들고 다른 엉큼스러운 짐승도 슬슬 굴안을 기웃거렸다.

우너는 그런 짐승들이 처음에는 그를 경계하다가 점차 우너가 배를 까치는 사람이 아님을 터득한 뒤로는 제가 살고 있는 쥐구멍이나 산속의 어느 소굴인 것처럼 여겨 제법 허물이 없어지기 시작하였다. 지난 날 바위 위에 먹을 것을 놓아두어 까치나 다른 새들과도 가까이 지내던 우너인지를 까치와 갈매기가 그 먹물 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을 본 뒤 그만둔 이래 그는 오랜만에 다시 그가 먹고 지내야 할 곡식을 짐승들에게 내맡겼던 것이다. 쥐 한 두 마리는 우너의 이마에도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우너의 귀를 건들이기도 하였다. 차츰 힘이 없어지는 상태의 단식 10여

일이 지나면서 그는 마음 속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이제까지 그는 공부에만 열중한 나머지 그 공부에 탐욕을 부렸던 것인가. "쉬자... 쉬어서 배를 받더라도 꼭 쉬자. 내 몸과 마음을 다 비워서..."

"... 내 어찌 함부로 부처님의 육자인(觸印) 따위를 쉽게 공공단 말인가. 여기 왼손이 있다. 이 왼손으로는 주먹을 쥐어 배꼽부분에 대고 오른손은 손가락을 펴서 아래로 드리우고 손바닥을 안으로 하고 손등을 밖으로 하는 결인(結印)이야 보리수 밑의 그분에게 맡길 일... 그것은 내가 할 노릇이 아니다. 꼭 쉬지구나. 멍cut 탐버라..."

그림·조항숙

탐욕은 내일의 아귀...나눔 모르면 아귀계에 떨어질 수밖에

의 탐욕과 함께 언제 없어지지 않을 수 없는 중생계이기도 하다.

또 한 이런 아귀계와의 예약된 중생 가운데는 저만 배부르고 남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이기심으로 되어 있는 중생이 있다. 아무리 지금 그의 공간에 쌓이나 곡식이 가득해도 이웃집이 굶주릴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나눔의 세계를 모르는 중생은 끝내 그 자신이 아귀계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은 처음부터 사실일뿐 어떤 케케묵은 교훈의 의미에도 상관없다. 그 사실이아말로 가파로운 신이 큰비로 말미암아 사태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분명한 사실일 뿐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삼아 볼

하기 위해서 재 두 눈알을 독수리에게 주었다는 시바왕의 이야기도 있지 않은가. 아니 어느 세상의 수행시절에는 굶주린 호랑이에겐 재 물을 던져주어 죽어가는 호랑이를 살려낸 일도 있지 않았던가.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인 그 탐욕으로부터의 해방과 보시와 자비의 실천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름아닌 부처가 아니겠는가. 우너는 수인의 아귀계 고통을 알게된 뒤로는 무욕도에 무욕도라는 이름을 지은 입단의 뜻을 새삼 뼈저리게 절감할 수 있었다.

"... 아귀는 굶이 설부주 밀 5백여수이나 되는 곳에만 있지 않다. 인간계에도 천계에도 널려있지. 아귀는 굶주림뿐 아니라 먹을 것이 있어도 재보가 있어도 그 무엇이 산더미로 쌓여 있어도 만족할 줄

의 탐욕과 함께 언제 없어지지 않을 수 없는 중생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삼아 볼



2541 부처님 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p>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p> <h3>불국사</h3> <p>조실 월산 성림 주지 응연 설조</p> <p>사부대중 일동</p> <p>▶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번지 전화 : 0561-746-9912~3</p>	<p>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p> <h3>법보종찰 해인사</h3> <p>방장 법전 (法傳) 주지 보광 (普光)</p> <p>대중일동</p> <p>▶ 경남 함창군 가야면 처인리 10 전화 : 0599-31-1001~3</p>	<p>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p> <h3>고운사</h3> <p>주지 법조 부주지 법혜 총무국장 일우 기획국장 법운 교무국장 정우 호법국장 법의 사회국장 귀일 재무국장 성오 포교국장 승현</p> <p>대중일동</p> <p>▶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16 전화 : 0576-33-2324</p>	<p>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p> <h3>금산사</h3> <p>회주 월주 주지 도영 총무국장 일원 기획국장 원행 교무국장 덕기 재무국장 덕산 사회국장 권진 호법국장 원성 포교국장 원진</p> <p>대중일동</p> <p>▶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전화 : 0658-43-4441</p>	<p>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p> <h3>고불총림 백양사</h3> <p>참사람 결사도량</p> <p>방장 서용 대종사 주지 지선</p> <p>고불총림 대중일동</p> <p>▶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전화 : 0685-92-7502 FAX : 0685-92-2081</p>
--	---	--	--	---